

통신하는 자의 사명감



박 순 백

〈경희대 평화복지 대학원 강사〉

■ 약력

- ▲ 경희대 평화복지 대학원 강사
- ▲ 전자출판 연구회 이사
- ▲ 출판대학 강사
- ▲ 소프트웨어지 “박순백 칼럼” 집필

■ 저서

- ▲ 퍼스널 컴퓨터와 그 응용
- ▲ 커뮤니케이션과 크로스톡 16
- ▲ 워드퍼펙 워드프로세싱
- ▲ PC 문화론
- ▲ 정보화사회를 바라보며

전자게시판(BBS : Bulletin Board System)의 등장

〈정보화사회〉지에서 전자게시판에 대한 기사를 다룬지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는 벌써 10여개의 전자게시판들이 출현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우리의 통신상황을 대변하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자게시판의 출현과 그 발전은 통신사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즉, 우리나라의 통신환경은 철저한 관주도형이었는데 이것이 민간인에 의한 통신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자게시판은 워드 크리스텐센(Ward Christensen)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1978년에 시카고에서 최초로 생겼는데 그 목적은 컴퓨터 사용자간에 정보의 교환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보자는 것이었다. 급속히 발전하는 컴퓨터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에 늦게 접근한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당시의 심각한 컴퓨터 사용자들은 이의 출현을 크게 반겼다. 크리스텐센이 명명한 최초의 이름은 컴퓨터 게시판, 즉 Computer Bulletin Board System이었다. 그리고 이를 줄여서 CBBS라고 했다. 지금은 모든 전자게시판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었지만 아무도 컴퓨터 게시판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크리스텐센의 CBBS가 워낙 유명해져서 이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 단지 BBS라고만 부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CBBS 이후에는 애플(Apple)이나 탠디(Tandy) 컴퓨터를 위한 전자게시판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이후에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되어 어느샌지 모르게 「전자게시판」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었다.

전자게시판과 통신의 풀뿌리운동

BBS는 처음부터 민간인들에 의한 통신수단으로 쓰여졌고, 대형의 컴퓨터가 아니라 소형의 개인용 컴퓨터에 의하여 운용되었으므로 이것은 철저하게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83년도에 만들어진 한 전자게시판 프로그램에 의하여 민간의, 민간에 의한 풀뿌리운동(grassroot movement)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탐 맥(Thomas Mack)이라는 사람이 IBM PC를 위한 전자게시판 프로그램을 찾다가 적당한 프로그램을 발견치 못하자 베이직(BASIC)언어를 처음부터 배워가면서 RBBS-PC(Remote BBS for PC)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이를 공개(public domain) 소프트웨어로 풀어놓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전자게시판운동이 우리가 아마츄어 무선사(HAM)들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고귀한 아마츄어리즘(amateurism)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정신은 전자게시판의 아버지인 크리스텐센의 정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일찌기 크리스텐센은 전자게시판을 만들어놓고 자신의 전자게시판에 접속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남김없이 전수하는 정도의 관대함을 보였다. 그러므로 최초로 전자게시판을 써본 사람들은 이같은 봉사를 하는 그에게 크게 경의를 표하게 되었으며, 그 역시 자신이 가진 귀한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정보의 공유를 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보의 공유가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컴퓨터를 통한 의견을 텍스트로 발송하는 정도의 가벼운 시도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기법에

관하여 전자메일을 주고 받다가 한사람이 상대가 필요로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동일한 일을 가지고 고생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전화선을 통한 이진(binary) 프로그램의 전송에까지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크리스텐센은 자신의 천재성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었다. 그가 이진파일의 전송약관(protocol)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XMODEM 프로그램을 개발해 낸 것이다. XMODEM은 『모뎀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즉, eXchanges of information through MODEM이란 뜻이다. 게다가 효과적이면서도 놀라운 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약관 프로그램을 크리스텐센은 공개 소프트웨어로 풀어버렸다. 이 사람의 철저한 아마츄어리즘은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전화선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것이 미국을 오늘날의 통신대국으로 성장시킨 이유가 되었다고 해도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탐 맥이 그의 공들인 전자게시판 프로그램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풀어놓은 배경의 근거에는 이와 같은 크리스텐센의 아마츄어리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그의 RBBS-PC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걸쳐서 전자게시판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심지어 프로그램의 소스(source)까지 공개되어 있어서 베이직언어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소스를 토대로 하여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변경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 개의 주에 수백 개의 전자게시판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되지 못한다. 탐 맥이 가진 정신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프로그램의 소스는 공유함으로써 더욱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청기와 장이의 옹고집으로 대변되는 이와는 정반대의 정신에 지배되어 왔다. 자신이 가진 노하우(know-how)는 타인은 커녕 자식에게도 전수되지 않고

있다가 임종에 즈음하여 장남에게만 전수되는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이 객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도 함께 묻히게 되는 비극적인 일도 많았다. 요즘 우리의 컴퓨터계에 있어서도 이런 한심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형 시스템의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사용 설명서를 후배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추는 일이 있었고, 요즘에는 공개 소프트웨어로 풀려있는 프로그램 소스를 입수하여 이것을 혼자서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의도적으로 봉쇄하는 일이 있다. 또한 프로라면 프로페셔널리즘에 입각하여 아마추어 이상의 진실한 엔지니어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 심지어는 컴퓨터백과사전에 실린 전자계산서 프로그램을 단지 한글만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어떤 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명백한 도둑질 행위마저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우린 왜 크리스텐센이나 탐 맥의 희생적인 정신을 본받지 못하는 것인가? 탐 맥이야 RBBS-PC 프로그램을 만들 때까지는 한 줄의 프로그램도 짜보지 못한 사람이어서 아마추어리즘의 고수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크리스텐센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프로그래머 중의 한 사람이었고 프로 중의 프로그래머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인을 위한 일, 공익을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아마추어리즘이었다. 하지만 통신을 둘러싼 개탄스러운 우리의 상황에 상서로운, 그리고 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에 대하여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된다. 우리가 가진 청기와 장이의 풍토에서도 귀한 아마추어리즘,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의 사명감까지 함께한 아마추어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이 통신분야에서 일어나고 있

으며, 이것이 한국판 전자계시판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생기고 있다는데서 우리는 역사적인 필연성에 대하여 눈을 돌리게 된다. 본격적인 공개 소프트웨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통신용 프로그램에서 선을 보였다. 물론 전에도 이기종간의 한글변환 프로그램 등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영역에 있었으나 이것은 일부의 사용자들에게만 소개되어 있었고, 이의 입수가 손쉽지 않았다. 그러나 통신용 프로그램이 나타나자 사태는 일변하였다. 그 대표주자가 목현상씨에 의해 개발된 리볼트(Revolt of the Empals)이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의 에뮬레이터(emulator)들이 가진 높은 가격과 제한된 기능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란(revolt)을 일으켰다. 이것은 공개 소프트웨어로서 나타났으며, 이것이 가진 기능은 과거의 어떤 한글통신프로그램이 가진 것보다 좋았다. 이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가진 환경, 즉 통신이라는 환경이 가진 장점을 심분활용하여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자신이 가진 통신의 노하우를 개방함으로써 이를 필두로 하여 메아리, 파발마, 메디콤, 한톡 등 훌륭한 에뮬레이터들이 속속 공개 소프트웨어로 등장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로고(logo) 화면의 메시지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복사하셔도 좋습니다』라는 우리로서는 처음 대해보는 기이한(?) 것이었다. 결국 『이제 에뮬레이터는 장사꺼리가 안된다』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심지어는 훌륭한 에뮬레이터를 개발하여 몇 년간 좋은 판매실적을 구가하여온 소프트웨어 하우스M사는 그들의 프로그램을 올해 들어서 공개 소프트웨어로 풀어버렸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크리스텐센의 아름다운 정신이 우리의 풍토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이제는 우리 나름의 좋은 전통을 쌓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마련된 것이다. 우린 더 이상 노하우가 아닌 것을 별난 기술인양 혼자 감추어 공익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풍토를 일궈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전자게시판이 만들어졌다. 이름하여 「엠펙 게시판」(EMPAL BBS). 이것은 「전자메일을 통해 만난 친구들」(Electronic Mail PAL)의 게시판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게시판은 진정한 통신의 풀뿌리 운동을 전개 하자는 20명의 청년들이 뜻을 모으고, 이들 각 자가 50만원씩의 기금을 기증함으로써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에뮬레이터를 개발하면서 얻은 산지식이 동원되고, 완벽한 한글이 구현되는 본격적인 한국형의 게시판으로 탄생한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소수의 게시판들이 거의 모두 탐 맥의 RBBS-PC를 변형시킨 것이었으며, 한번에 단 한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싱글유저(single user)용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힘으로 다중사용자(multi user)를 지원할 수 있는 토착형의 전자게시판이 출현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무적인가?

특히 이 게시판이 사용하고 있는 7개의 전화포트(port)가 이들의 노력을 높이산 사람들에게 의하여 기증되었다는 것도 미담이 될 수 있다. 지난 5월 말에 개통되어 이미 이 전자게시판을 사용하는 회원의 수가 400명에 필적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운동에 대한 컴퓨터 사용자의 호응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귀한 뜻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그 아름다운 정신이 보다 넓게 퍼져나갈 수 있음을 우린 쉽게 긍정할 수 있다. 엠펙 게시판을 비롯하여 현재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게시판의 수가 10개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비로소 전자게시판운동이 태동하고 있음을 가르쳐준다. 이 운동은 민간 운동이기에 귀한 것이다. 더우기 이 운동의 저변을 흐르는 정신이 구속된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부과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이타적인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다.

끝으로 통신의 진흥이란 것은 말만 앞세워서는 되지 않는다. 우린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화려한 등장과 그들의 초라한 몰락을 많이 보아왔다. 그들의 몰락은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나 그들과

같은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밝히고 또 밝혀도, 결국은 다시 일어나는 풀뿌리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었다.

그들에게 물었다. 『지금하는 일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어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예상외의 것이었다. 『도움이요? 그런 것은 없어도 됩니다. 지금껏 도움이 없이도 잘 해왔으니까요.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로 평가를 받고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제도적 환경의 조성이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통신의 민간운동이 앞으로 계속 법규위반으로 여겨지는 사회라면 우리에게 정보화사회의 도래는 없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통신하는 자는 세 부류가 있다. 통신의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라의 장래를 꾸려가야 할 사람들, 민간의 통신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두 부류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통신이 주는 혜택을 누리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 중 앞의 두 부류는 왜 통신이 진흥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사명감을 지녀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통신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사람들이 가진 사명감이 풀뿌리 운동에 뛰어난 사람들의 사명감을 당하지 못하는데 아이러니가 있다고 하겠다.